

한국은 처음이지?

찜닭을 좋아하는 Mahoro Patience의 한국 유학생활기

전서영 · 황지선 · Mahoro Patience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Mahoro Patience 학생의 한국 유학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Mahoro Patience 학생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 부룬디에서 왔고 현재는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Mahoro Patience입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Nutritional Sciences 실험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사람이 매일 음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생리 활성 물질이 질병 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지도교수인 차연수 교수님의 지도하에 현재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전통 장류 중 하나인 고추장을 이용하여 장 건강 개선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매료시킨 것은 국제적으로 가치 있는 교육 시스템과 한국 사회의 열심히 일하는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 한국은 문맹률이 굉장히 낮고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 시험에서 한국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다양한 성과들을 보았을 때 한국 교육 시스템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에 의해 한국 학생들은 성실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러한 한국의 성실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한국으로의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귄 것이 가장 좋은 추억입니다. 한국은 단일 인종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 전에는 피부색 때문에 인종차별을 겪거나 낯설어 할까 봐 두려웠는데 막상 경험을 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마주치는 학생과 교수님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주었고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거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전주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를 가진 집이 많이 있는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전주의 유명한 관광지로 한옥의 아름다움과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학교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도 유학 생활 중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찜닭입니다. 원래부터 저는 닭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한식 메뉴로는 단연코 찜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horo Patience



인터뷰 사진

특히 찜닭에서도 간장으로 만든 찜닭이 저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터득하지 못한 것이 제가 직면한 한국에서의 주요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어를 짧은 기간인 8개월 동안 배웠기 때문에 한국어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였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나 수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수업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시험과 과제도 영어로 배려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고, 수업이 끝난 후 저의 연구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글과 유튜브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저와 같이 Nutritional Sciences 실험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실 친구들은 한국어가 미숙한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문화적인 차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박사님들과 후배들의 배려로 연구실 생활에서 서서히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 도움을 준 지도교수님, 연구실 친구들과 박사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으며 유학이 끝난 후에도 많이 생각나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였는데, 현재로서의 계획은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을 밟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양학과 관련된 주제, 과정, 프로젝트를 연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학 오기 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부룬디에서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들이었습니다. 부룬디 언론을 통해 알고 있던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첨단 기술 호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이지만 북한과의 갈등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군사행동에 끊임없이 몰두하고 있고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걱정하였던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의 미국인 친구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 2시쯤 늦은 시간에 거리를 걸어 다녀도 완벽하게 안전했습니다. 최근 2018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사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50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

전한 여행지 중 하나로 여깁니다.

또한, 이전에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전혀 몰랐지만 이제는 한국의 대중음악, 영화, 그리고 TV 드라마가 정말 인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가수들이 빌보드차트에 올라 K-Pop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영화 산업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가장 그리울 것 같은 한국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한국음식(K-Food)일 것 같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그리울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찜닭이 가장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반찬들과 국을 함께 먹는 문화가 있는데 이러한 문화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먹어 본 삼겹살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음식문화는 분명 그리울 것 같습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시간이 언제든지 신속하고 간편한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배달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음식 배달 뿐만 아니라 커피도 배달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부룬디에 돌아가서도 그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국에서 한국 유학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그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어떠한 연구를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면 처음에는 외롭기도 하고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과 하고 싶은 연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학 오기 전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구실 사람들과 친해지는데도 도움이 되고 수업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하고자 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유학생활이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꿈에 가까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유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